

두 명언

호주머니에는 언제나 두 말쑼을 넣고 다니시오.

“나는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다.”

“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.”

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다.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, 그리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처럼…,

그러나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.

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것이 아니라는 듯이 죽는다.

어린이는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.

이유도 없이 즐겁다.

잠시도 쉬지 않는다.

바라는 것은 꼭 손에 넣는다.